

# 닭의 호흡기성 마이코플라스마병 대책

〈한국 카아길 기술지도부 제공〉

C.R.D 즉, 닭의 호흡기성 마이코플라스마병이라고 불리워지는 이 병이 우리나라에서는 널리 퍼져 있어서 양계업계에 여러가지의 피해를 주고 있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3년에서 5년 이상에 걸쳐 같은 장소에서 어느정도 이상의 규모로 양계를 하는 경우에는 소위 호흡기성 증상을 동반한 병을 경험하지 않는 사람은 과연 얼마나 있을까.

마이코 플라즈마·갈리셀티검(M.G)에 의해 생기는 이 병은 단독으로 피해가 문제되기 보다는 M.G에 감염하고 있어도 닭이 호흡기병의 증상을 나타내지 않는 일이 많고 스트레스나, 다른 세균, 원충, 바이러스 등의 병이 합병하는 경우, 소위 호흡기증상이 중증화(重症化)하여 눈에 띄이든지 다른 병과 같이 되어 복잡한 병상을 띄고서 비로소 문제가 되는 것이 하나의 특징이라 하겠다.

다른 호흡기병인 전염성기관지염, 전염성후두기관염, 전염성코라자, 계두 등과 구별하는 문제는 전문수의사와 상의할 문제이나 우선 닭의 호흡기성 마이코 플라즈마 병을 이해하고 대책을 세우기 위한 방향, 이 병에 있어서 예방상 위생관리 등에 중점을 둔 사양관리 및 치료대책을 경험자와 의논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 (1) 닭의 마이코플라스마 병의 특징

다음 세가지의 특징을 알아 두는 것이 이병의 대책을 세우는데 있어 우선 필요할 것이다

1. 전파가 잘된다.
2. 호흡기 증상을 보이지 않고 M.G에 대한 항체에 의해서 만이 감염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고(불현성 감염), 유행하고 있는(불현성 유행)것을 알때가 많다.

3. 알을 매개로 한 전달(난개전달)을 한다. 말하자면 M.G를 체내에 보유하는 닭(보균계)이 균을 가지는 알(보균란)을 낳아 균을 갖는 병아리(보균추)가 생겨난다.

## (2) 임상증상(臨床症狀)

야외에서 만성 호흡기병으로서 임상소견상 눈에 띄는 닭의 태반이 다른병(전염성 코라자, 계두, 대장균, 포도상구균, 기관지염 등)에 의해서 복합상태에 있기 때문에 닭을 마이코플라스마 병으로서의 특정적 소견을 야외에서 본다는 것은 무리일 것이다.

그러나 우리들의 경험에 의하면 단독 감염체를 인공적으로 만들었을 경우, 극히 일부 보여지는 그 호흡기 증상이란 약간의 콧물이나 오는 것과 이상 호흡음 등이다.

## (3) 기낭염(氣囊炎)과 M.G감염

닭의 호흡기의 하나로서 있어서는 안되는 것이 기낭(氣囊)이다. 닭은 호흡할 때 공기가 기관에서 기낭에 들어가 기관지를 지나서 허파에 가는 경로를 밟기 때문에 M.G는 특히 이 기낭에 침입하여 기낭에 염증을 일으키는 일이 있다. 닭을 해부하여 기낭염이 있으면 우선 감염을 의심해야 한다. 또 이 기낭염의 정도는 M.G와 같이 다른세균(주로 대장균등)이 혼합 감염하면 악화된다. 그러나 기낭염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이 감염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 (4) M.G병을 일으키는 스트레스 인자

M.G는 닭에 불현성상태로서 감염하는 일이 많고 M.G에 감염한 닭이 발병할 때까지는 다른 병원체 이외의 스트레스 인자로서 다음과 같은 것을 들 수 있다.

- (가) 기온이 별안간 내려갔을 때.
- (나) 습도가 별안간 높아졌을 때,
- (다) 기온이 별안간 내려가고 습도가 별안간 높아졌을 때.
- (라) 습기가 불충분 할 때.
- (마) 수송이나 이동을 할 때.
- (바) 사료의 영양이 불충분 할 때.

이러한 스트레스를 주는 원인으로서 닭의 밀사, 가을에서 겨울, 겨울에서 봄에 이르는 동안 기후가 급변하기 쉬울 때에 닭을 외기에서 충분히 보호해 줄 수 있는 설비가 되어 있지 않든지 또한 춥다고 해서 계사를 급히 비닐로 둘러서 신선한 공기가 들어가기 어렵게 했다는 등 사양관리상의 실패가 원인으로 되는 일이 많다.

#### (5) 호흡기성 마이코프라스마병에 의한 피해

1. 산란계에서 산란을 저하.
2. 브로일러나 육성계에서 체중감소.
3. 수정율 및 부화율 저하.
4. 허약한 병아리의 증가.
5. 폐사

#### (6) 호흡기성 마이코 프라스마병의 대책

1. 계사의 바닥은 항상 청결하게 한다.
2. 사료는 위생적으로 저장한다.
3. 이웃 양계장 및 계사간의 거리가 가급적 떨어져 있을것.
4. 계사내의 오물이나 사체 등을 버리는 장소는 미리 정해 두고 그곳에서의 감염이 없도록 조치한다.
5. 양계장 및 계사의 입구는 소독반과 탱크를 설치하여 사람의 출입에는 반드시 신발을 소독할 것.
6. 닭을 넣기전에 계사 소독을 충분히 할 것.
7. 일령이 다른 닭 및 출처가 다른 닭을 동거 사육하지 말 것.
8. 계사내에서는 특정의 사육자 외에는 가능한 출입을 제한 할 것.
9. 주사나 이동시에는 반드시 영양제를 투여 하여 실시할 것.
10. 겨울철에 계사내 환기창과 환기팬을 적절히 시설해 둘 것.

#### (7) 치료대책

시판되고 있는 약품으로 훌륭한 제품이 몇 군데 동물약품회사에서 나오고 있으며 쉽게 구입할 수 있다.

